고주몽

글 황복경
그 림 박은경

뚜거덕
뚜거덕
뚜거덕

여기에다 자리를
정하자구.
그게 좋겠소이다.

어머니, 드디어 졸본땅에 도착했나이다.

주몽의 가슴속으로는 지나온 나날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과연 그는 어떤 사연을 안고있기에 이 졸본땅에 나타났는가.

?

흑 흑

아니?

?

나는 부여국의 왕이
거늘 그대는 어인 일로
슬피 혼자 우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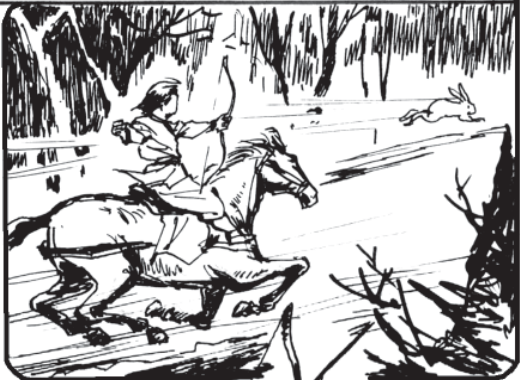
저는 이웃소국의
왕인 하백의 맏딸
류화라고 하옵니다.

하백? 그럼 그대는 공주란 말이냐?

그대의 슬픈 사연을 어서 아뢰여라.

부모의 허락없이 하늘의 아들인 해모수와 정분을 나누었다 하여 부왕마마께서 저를 이렇게 귀양살이 보냈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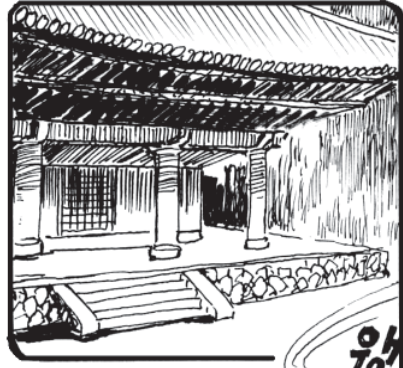
이리하여 류화는 금와왕을 따라 그의 별궁에서 살게 되였으며 비범한 사내아이를 낳게 되였다. 그가 바로 고주몽이였다.
주몽은 나서 한해가 되기 전부터 걸어다니며 말을 하였다.

옳지: 용다

어린 아이가 하도 활을 잘쏘아 그의 이름을 주몽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그때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다.

앵
?
아니?
!

핑

딱

맞았다!

이시기 금와왕에게는 대소를 비롯한 일곱왕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글공부나 용맹에 있어서 주몽을 따를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늘 주몽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다.

세월은 흘러…

주몽의 사냥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데 래일 왕자들과 겨루어보도록 하라.
알겠소이다.

이번 사냥경기는 대왕마마의 특별한 관심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니 심판관이 알아 조처해주기 바라오.

말씀의 뜻을 알겠소이다.
부-웅

이랴!
야
뚜거덕 뚜거덕

둥둥
야
챙챙
흥, 말도 없
는 주제에…

너희들은 주몽보다
무엇이 부족하냐?
어째서 매번 주몽에
게 뒤떨어지느냐?

겨루기를 한다면서
어찌하여 나에게는
말도 주지 않는가?

앗
꽥

뚜우

과시 이 나라의 대들보로 자라난 왕자님들답소이다.

그러구두 뭐 주몽이라.
흐흐흐
히히히
엉?!
!
과시 주몽이 답군.
힘이 장사 로구만.
챙챙
야
야

넌 말도 못탄 놈이 이 많은 걸 어떻게 잡아왔어?
흥!

우리가 잡아놓은 걸 훔쳐왔지? 바른대로 말해!

건방진 놈!
네가 감히 이 태자를 쏘아봐?

얍

아이구
야, 저놈을 쳐라!
야!
이얏
애비없이 자란 놈이 감히
태자님께 손찌검을 해!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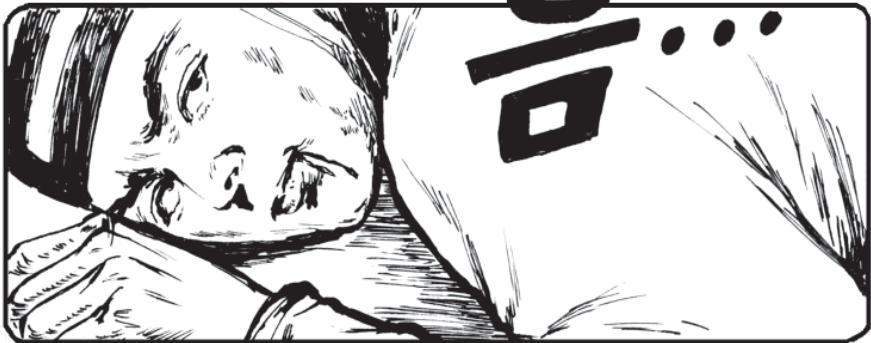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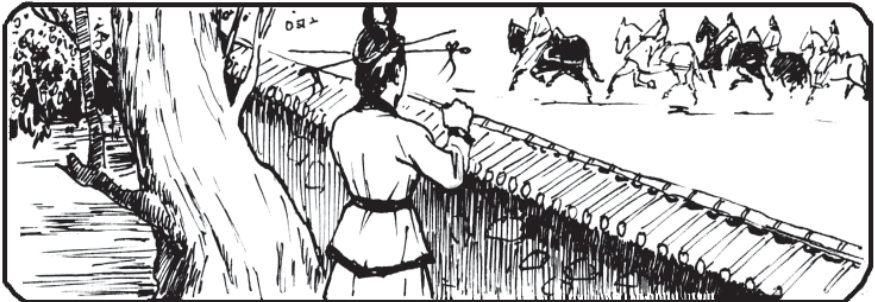
흥, 이젠 어쩔수 없이 짐승의 밥이 되고말테지.

주몽이한테 무슨 일이?…

아
나는 어찌하여 이런 멸시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내 네놈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테다!

으윽!
이얏!

주몽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머니, 저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오이까? 말씀해주시오이다.

주몽아, 오늘은 내 다 말해주마.

너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들 해모수이다. 사냥하러 왔던 너의 아버지와 나는 청하기슭에서 서로 만났지.

내 오늘 그대를 만남은 하늘이 준 연분이라고 생각하오.
류화!
어마나!

며칠후
나를 버리고 가시다니요.
그대를 버리고 가는게 아니요. 부왕마마에게 우리 사이를 이야기한다음 류화를 데리려 다시오겠소.
그때까지 꼭 기다려주오.

그러나 해모수는 그후 말갈족과의 싸움에서 용맹하게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 이때부터 류화의 불행이 시작되였다.

너 이년, 부모의 허락도 없이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기고
어찌 낯을 들고 다닐수 있느
냐? 집안망신을 시킨 네년을
그냥둘수 없도다.
부왕마마!

나는 부여국
의 왕이거늘
그대는 어인
일로 혼자 슬
피 우는고?
바로 이렇게
된거다.
어머니!

어머니의 당부를 폐부에 새기겠나이다.

형님! 주몽이놈이
돌아왔소이다.
뭐라구?
그놈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
저놈이 정말 힘
이 황소갈군.
엉?

형님들을 인차 뒤따라온다는 게 좀 늦었소이다.
?
탁
탁
쿵
저놈을 그냥 두었다간 나라에 큰 우환이 떨어지리라.

대왕마마, 왕궁
에 불길한 조짐
이 비꼈나이다.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고?

주몽은 너무도 비범
하여 그냥 두었다가
는 나라에 큰 우환이
미칠것이오이다.

대왕마마, 소인의 생각에 는 주몽의 뛰여난 무예와 기상에는 분명 딴 속심이 비낀듯 하오이다.

음?

태자님의 우려가 공연한것이 아니 라고 보오이다.

만일 서둘러 주몽을 없애 버린다면 오히려 더 큰 화가 미칠것이오이다. 사나운 개를 길들이면 충견이 될것이온즉 그를 잘 다스려 곁에 두심이 상책인줄로 아오이다.
음, 그대의 말이 옳음직하다. 주몽을 말목장에 보내여 말을 치게 하고 활쏘기와 사냥을 금지하도록 해라.

알겠소이다.

과시 장하다. 내 아들아!

어머니!

주몽아, 일은 서두르되 덤비지 말고 착실히 준비하거라. 또한 벗들을 사귀는데서 신의를 중히 여겨야 하느니라.

명심하겠소이다.

우선 지금 당장은 말목장에 가서 성실하게 일하거라.

딱

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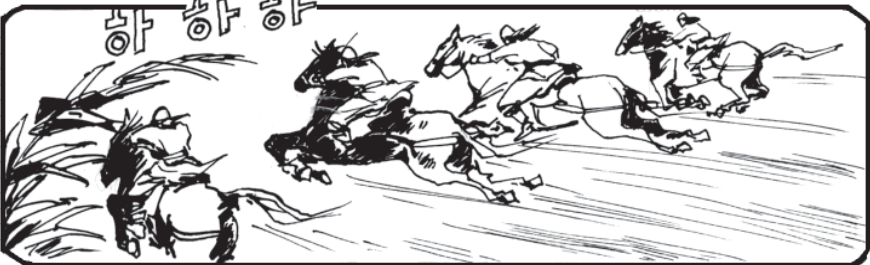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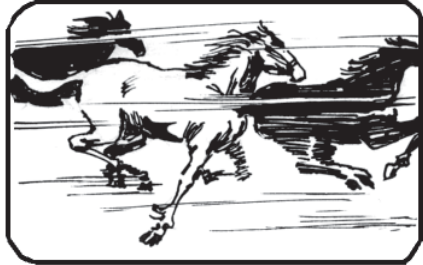
뚜거덕 뚜거덕

바로 찾아왔군.
놀라지 마오. 우린 그대의 벗이 되고저 찾아온 사람들이요.
난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소.
난 오이라고 하오. 오래전부터 그대의 뛰여난 무예와 인품을 마음속으로 따르던 사람이요.
난 협보라고 하오. 우린 그대가 억울함을 당한것이 분해서 이렇게 찾아왔소.

벗으로 되자는 그대들이 고맙소. 하지만 나야 보다싶이 목동이 아니요.

내 인사가 늦었소. 난 마리라고 하오. 그대와 뜻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니 우릴 버릴 생각은 조금도 마오.

나를 따르는 길이 헐치 않소.

목숨으로 그대를 따르리오.

류화는 마음씨가 고운 례씨를 주몽의 배필로 정하여 성례를 치르게 하였다.
그동안 주몽이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게 알리는구나. 저 말들중에서 왕자들에게 줄 말들을 골라들여라.

왕자들은 장차 부여국을 지켜갈 장수로 되여야 하거늘 내 오늘 좋은 말 한필씩 하사하노라.

앞으로 누가 장수가 되겠는가 하는 시험을 이달 보름날에 치르겠다.
합격자는 주몽과 사냥겨루기에서 평가하겠다.
그리 알고 훈련에 전력을 다할지어다.
알겠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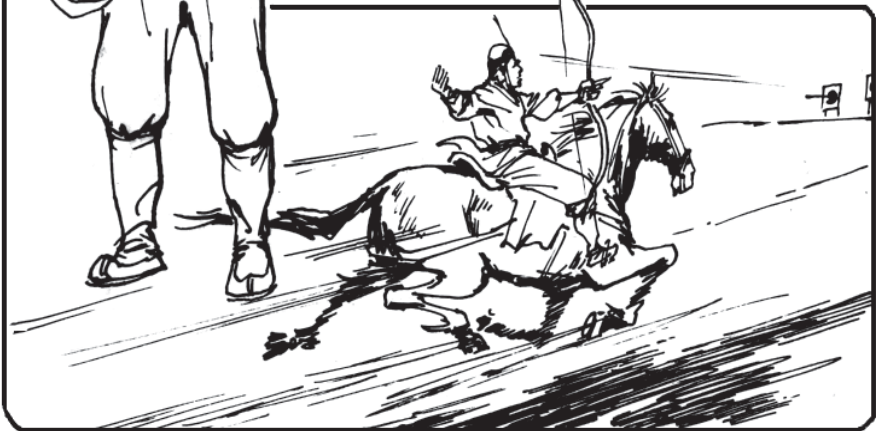
주몽, 그동안 너의 수고를 헤아려 이 말을 너에게 하사하노라.
고맙소이다.

저 말의 혀바닥밑에 바늘을 꽂아
여위게 하거라. 그러면 왕의 눈밖
에 날것인즉 저 날랜 준마는 반드
시 네 말이 될게다.
아, 어머니의 말씀
이 맞았소이다.
얏

대감!

태자님이 어인 일로?
부왕의 어명으로 우린 래일 사냥을 나가게 됐네.
그건 나도 알고있소이다.

래일 주몽이가 사냥하러 떠날 때 그놈에게 화살을 한대만 주시오. 알겠소.

그렇게야 어떻게… 숱한 사람들의 눈이 있는데…

그래서 대감이 아니요. 검
은것도 희다고 할수 있는 권
세를 어디다 쓰겠소?
알겠소이다.

야 야
와 야!

핑

제기랄

끄액!

끄액
핑

화살을 또 뽑아야 겠군.

어머니, 저이가 왜 화살을 다시 뽑소이까?
저 주몽에겐 화살이 한대뿐이라오. 듣자니 왕자들의 강박에 심판관이 화살을 한대만 주었다누만.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소.
쉿! 조용하오. 불공평이 어디
여기 사냥경기에만 있소?

뚜우
뚜
사냥경기가 끝났
구나.

뚜거덕 뚜거덕

얘야, 우리 저기 가서 사냥경기결과를 알아보자꾸나.

주몽 혼자서 한대의 화살로 잡은 짐승이 일곱왕자들이 잡은 짐승보다 더 많소이다.
음, 과시 주몽이 무사는 무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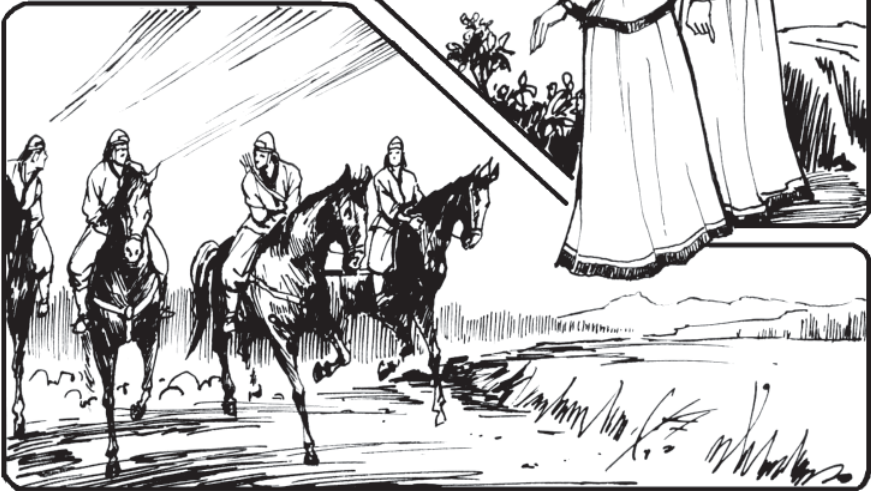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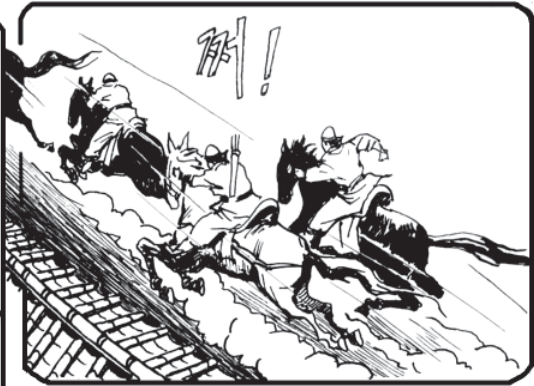
이미 내정하신것처럼 대왕님의 곁에 호위군사로 두시면 무서울것이 없을줄로 아오이다.

아니오이다. 주몽과 같은 비상인을 곁에 두심은 마치 승냥이를 기르는것과 갈사옵니다. 하온즉 그가 더 사나운 승냥이로 되기전에 없애버림이 상책인줄 아옵니다.

음
그대들 생각대로
하라.
예 잇!
아

안 된다!
어머니, 부디 몸조 심하 시오이다.
오냐, 어서 떠나거라.
걱정말고 꼭 큰뜻을 이루거라.
어머니!

어머님을 잘 모셔주오. 그리고 몸을 잘 돌보오. 아들을 낳으면 일곱령 일곱골짜기 돌우의 소나무밑에 감추어둔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도록 하오.
알겠소이다.
깨!

협보, 마리, 빨리
배를 찾아보게.

알겠소이다.

주위엔 쪽배 한척 없소이다.
뭐라구?

저놈들이 강을 건느기 전에 붙잡아야 한다.

자, 어서 떠나자구.

한발 늦었구나. 야,
화살을 날려라.

핑
피융

휘휙
탁탁
탁
휘휙

내 기어이 새 나라를 일떠세워 어머니와 그대의 원을 풀어주리라.

에익, 천하에 악독한 놈.

자, 새 나라를 위해 앞으로!
알겠소이다.

주몽일행은 남쪽으로 계속 달리다가 모둔곡골짜기에서 자기들을
따라나선 재사, 무골, 묵거라는 세명의 벗을 더 얻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동부여에서 떠난 주몽일행은 졸본땅에 종착점을 정하였다.

어머니, 드디여 졸본땅에 도착했나이다.

어머님과 형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날이 멀지 않았소이다. 저 길 좀 보소이다.
어머님!
아름다운 이곳에 터를 잡아 강대한 나라를 일떠세워보자구. 그러자면 이곳 지형을 살펴보아 어떤 세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하네.

주몽이 알아본데 의하면 이 지방은 과루부지역으로서 연타발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있었다. 구려국은 이 시기 제나부, 환나부, 과루부, 관소부, 연나부 이렇게 오부로 이루어져있었다.

자, 걸음을 다그치세. 연타발을 만나려면 빨리 이 숲속을 벗어나야 하네.

따웅

퍽
으앙
퍽

후
과시 명궁
이오이다.
하 하 하

그대는 명궁
이오이다.
?
?!
!

호호호

?
엉?

보아하니 이 지방 사람들은 아닌것 같은데 어디서 오는 길손들이시오이까?

우린 지나가던 사람들이요. 이 깊은 산중에서 사냥군차림을 한 녀인을 보게 되니 참 반갑소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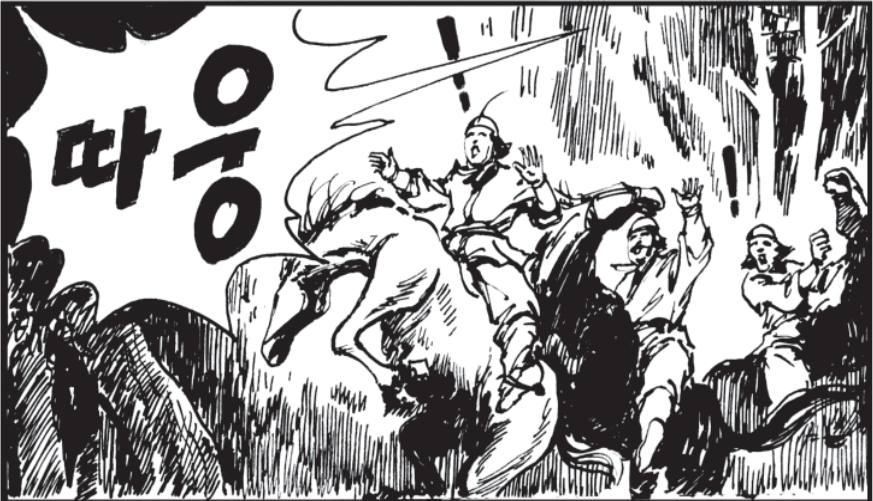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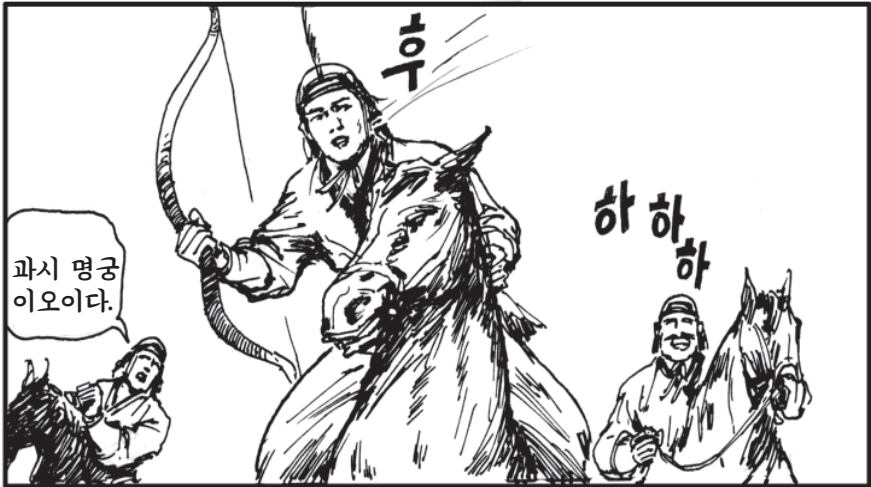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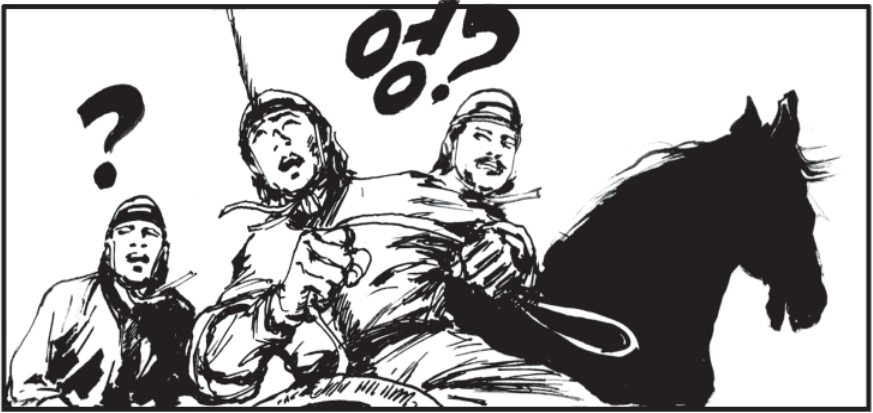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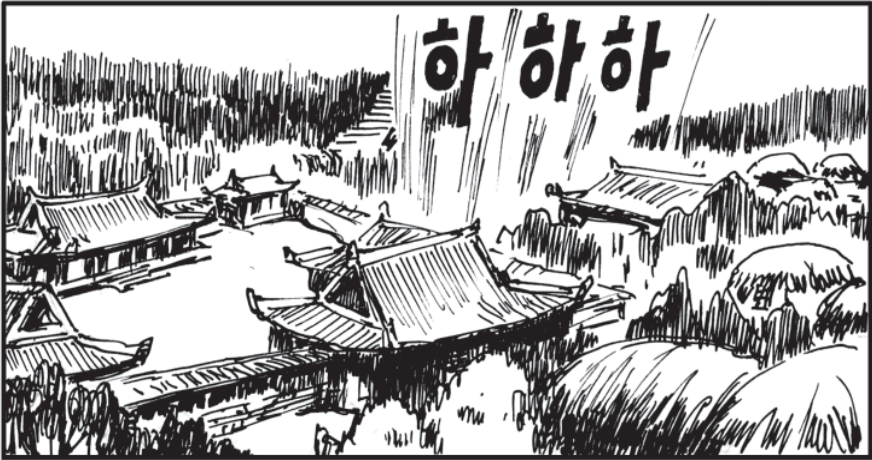
정말 담이 보통
이 아니오이다.
하 하 하

녀인을 괄시하는 말씀 삼가하시고
어서 갈길이나 가보시오이다.

허허, 성격이 보통이
아닌걸.
도고함이 이를데 없소이다.
보아하니 려염집 아녀자갈
지는 않소이다.

저 집이 연타발의
집이 옳은것 같소.

그대의 명성은 이미 들어 알고있지만 이렇게 만나고보니 소문이 그른데 없구려.

말씀을 낮추소이다. 제 아직 떳떳이 나설만한 그 무엇도 해놓은것이 없소이다.

아니, 그대는 훌륭한 인물임이 틀림없소. 허나 우리 계루부엔 그대만한 장수가 없거든. 지금 말갈족의 침해로 구려국에서 연나부 다음가는 우리 부족이 점점 쇠퇴되여가고있소.

말갈족이 자주 침해한다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일이오이다.

허나 말갈족을 쳐부시겠다는 장수가 이 과루부엔 없는걸 어찌하겠소. 내 딸 소서노도 말갈족놈들에게 남편을 잃고 젊음을 쓸쓸히 보내고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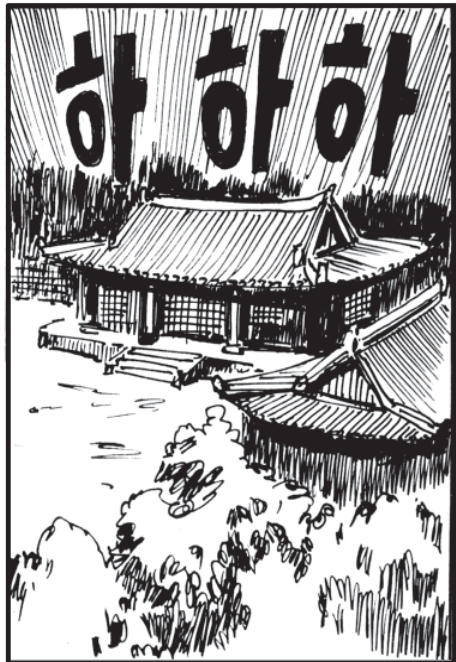
여봐라! 아씨를 들여보내거라.

예 잇
?!
!
아니?

얘야, 어서 인사를
하거라.

아, 따님과는 이미 구
면이오이다.

그, 그건 무슨
소리인고?

하 하하

말갈족에 대한 과루부백성들의 원한은 하늘에 닿았네. 말갈족을 쳐부시면 앞으로 과루부지역을 장악하는데 유리할것 갈네. 그대들 생각은 어떤가?

그럼 내 연타발과 토의
하고 그곳 싸움군들을
선발하도록 하겠네.
그렇다면 걱정할것
이 없소이다.
나가자!
앞으로!
와
와

으악
이놈!
아

얏
하!
오호호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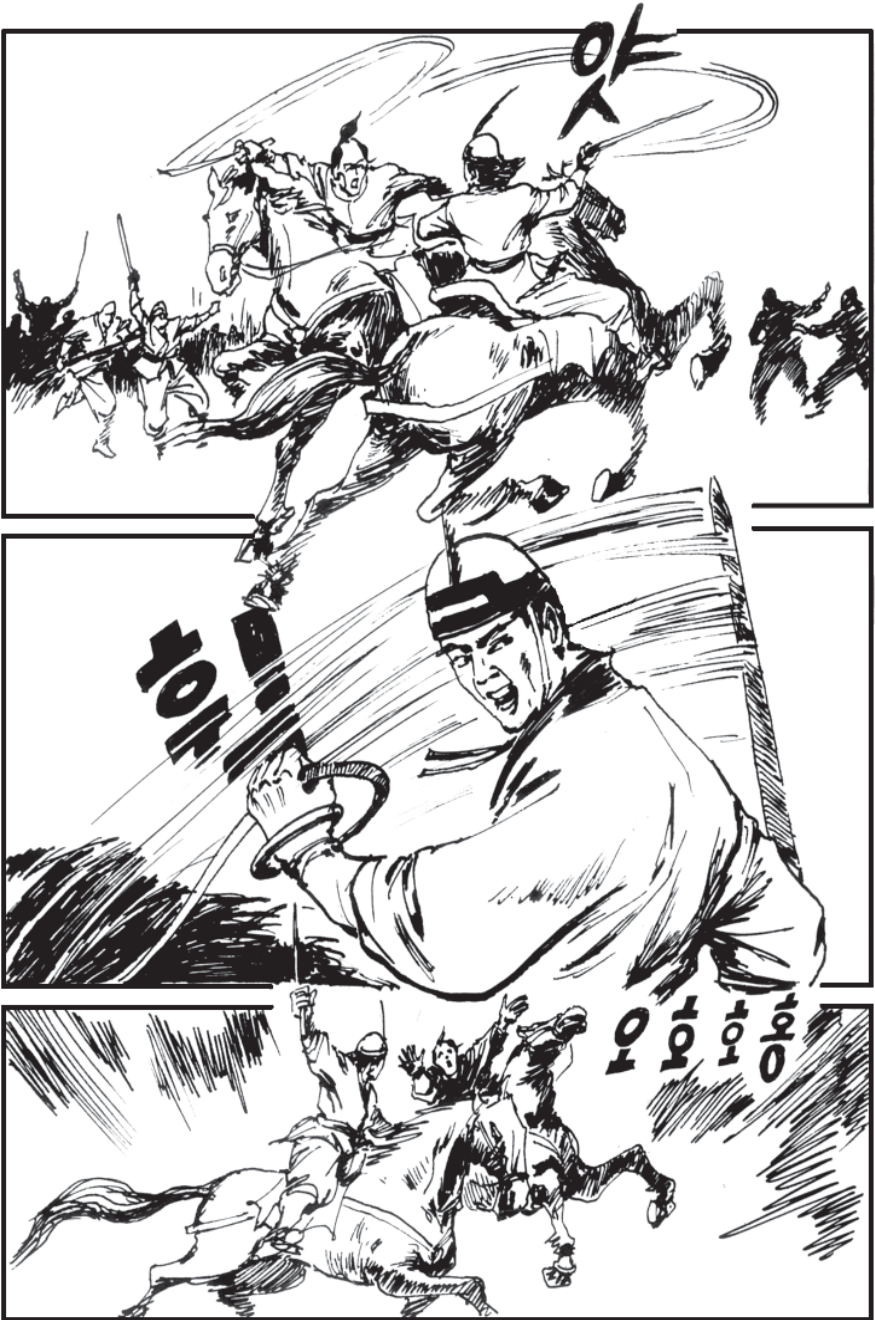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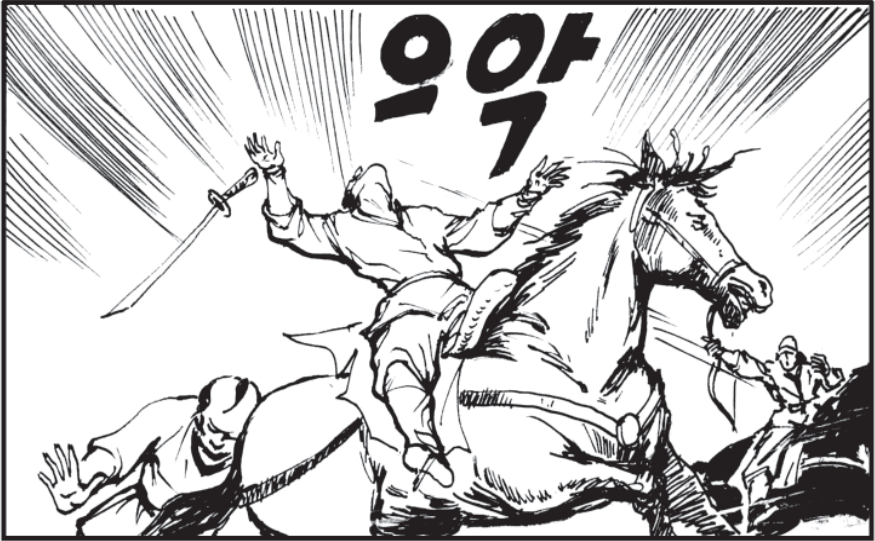
으악

아—앗

빽
얏
늑
닥
야!

야앗
흐익
으아앗
챙
챙강
마리! 잘한다.

야
과루부백성들의
복수다. 이 협보
의 창을 받아라!
으약
뚜거덕 뚜걱

살아남은 놈들
이 도망치지 못
하게 하라!

과루부백성들의 원한이 풀렸으니 이 땅이 들썩하게 잔치를 크게 차리도록 하라!
야! 와 야
와 야!

온 과루부에 승리의 기쁨이 가득 찼소.

그대와 같은 인재가 나선다면 우리 과루부는 물론 구려도 다시 부흥할것이 틀림없소.

고맙소이다. 과분한 말씀이오이다.

?

내 딸 소서노도 전장에 바치겠으니 그와 손잡고 싸워 품은 뜻을 이루오.

부디 우리 과루부의 대인으로
나서주시오이다.
이 한몸 다 바쳐 기대
에 보답하겠소이다.
보답하겠소이다!

처음 만났을 땐 오뉴월에도 서리가 일듯 하더니 오늘의 당신은 녀걸임이 틀림없소. 우리 힘과 지혜를 합쳐 이 나라를 한것 부흥케 하자구.

랑군님의 뜻을 있는 힘껏 받들겠나이다.

호호호
하하하
고맙소.

이리하여 주몽은 과루부의 왕으로 되였으며 성벽을 다시 쌓고 넓은 초원을 밭으로 전변시켰으며 군사를 훈련시켰다.

구려국왕이 이번에 우리 과루부를 순시한다는데 어떻게 맞이하면 좋겠소이까?

이전에는 어떻게 하였소?

전에는 구려국왕이 행차하
면 과루부의 모든 귀족들이
떨쳐나 마중하였는데 이번
에도 그리해야 하겠는지…

오랜 세월 연나부에 머리숙
여오던 우리 과루부가 이제
는 끌장볼 때가 되였다고 생
각하오이다.

음, 내가 알아 조처할
터이니 그대들은 마음
을 놓소.

구려국왕의 행차

과루부가 생겨
처음보는 모습
이로다.

먼길에 수고가 많으셨
소이다.

아, 내가 머리를 숙이다니, 참
으로 놀라운 일이로다. 아-
주몽의 위세가 천하를 진감하고
있는 덕이로다.

야
과시 놀랍도 다. 저런 군사를 당할자 어디에 있겠느냐.
대왕께서 이런 험지 에까지 순시해주시 니 황송하기 이를데 없소이다.
음, 주몽을 보니 그 대의 어깨우에 우리 구려국을 통채로 올 려놓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오.

주몽은 그후 구려국왕의 부마로 되였으며 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구려국의 왕으로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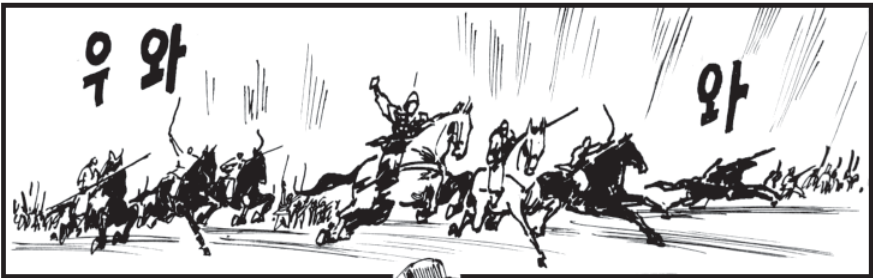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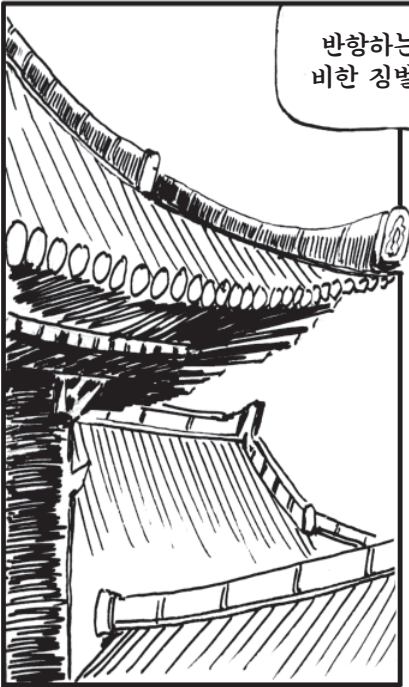
그는 B.C. 277년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였으며 자기의 성도 《높을 고》자를 붙여 고주몽이라고 하였다.

고주몽은 졸본성을 고구려의 첫 수도로 꾸리였으며 주변의 소국들을 통합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하였다.

대왕님, 비류국을 비롯한 주변의 소국들이 우리 고구려에 스스로 넘어왔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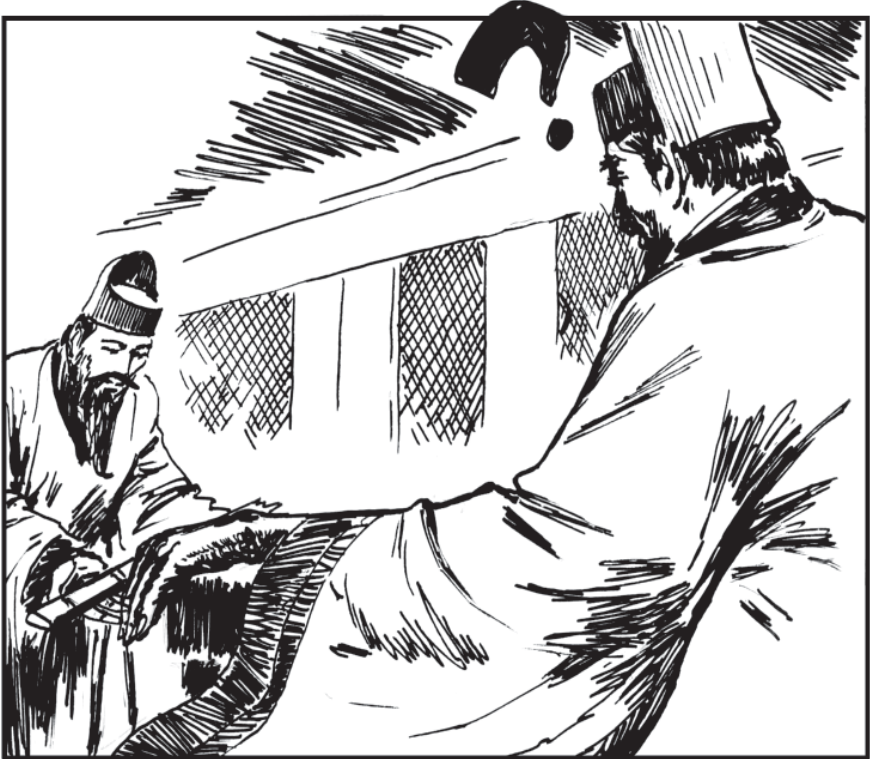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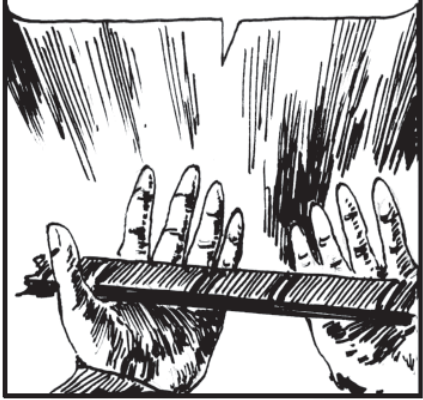
대왕님, 저
희들을 받아
주시오이다.
정말 기쁘오.

반항하는 행인국과 북옥저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라!

아뢰오

궁전대문에 낯모를 젊은이가 찾아와 대왕님을 뵙겠다 하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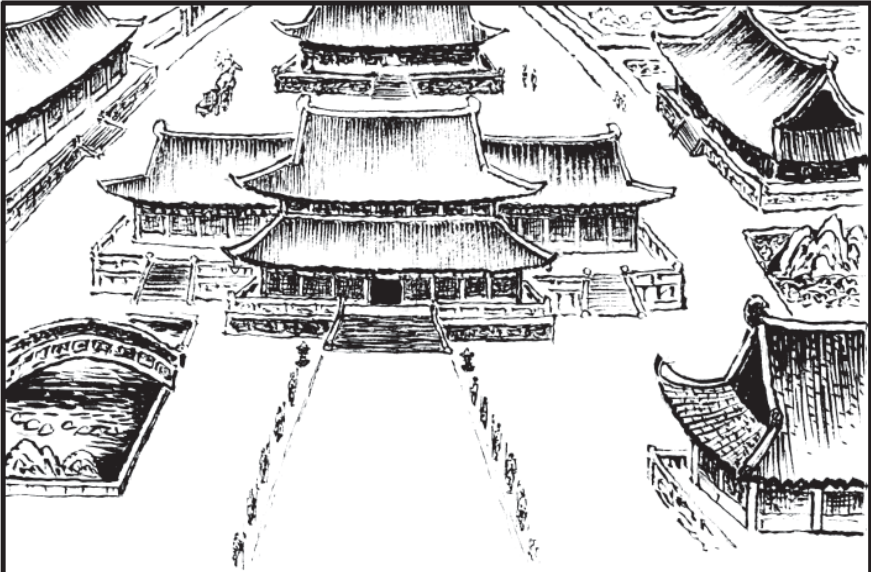
그 젊은이가 이 칼자루를 대왕님께서 보시면 자기를 알아볼것이라고 하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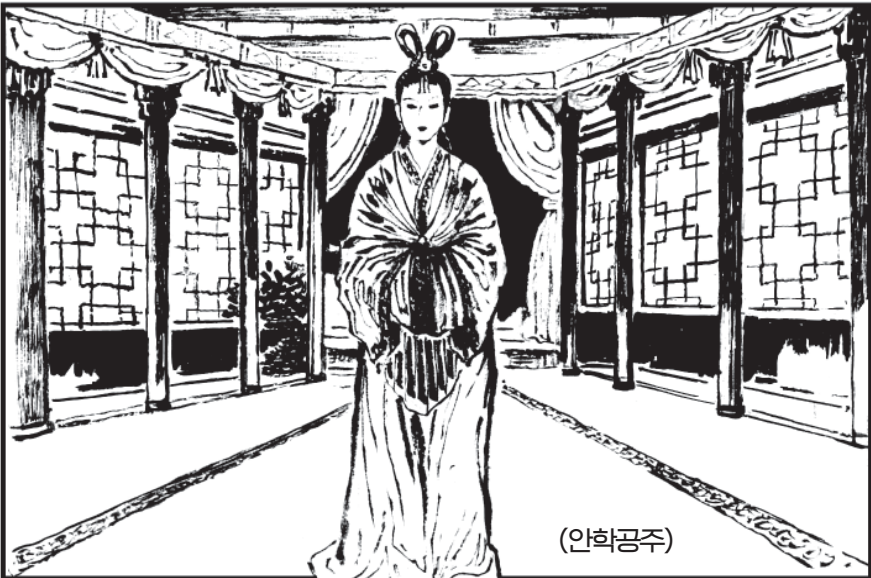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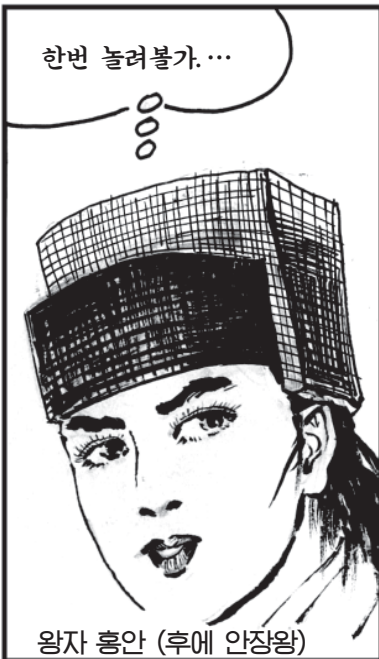
내 방에 가서 목함
을 가져오너라.
알았소이다.
가져왔나이다.

!
아들아!

부왕마마!
유류!
할머님은 생전에 늘 아버님처럼 큰 뜻을 품고 억세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나이다.
음, 어머님은 가셨어도 이렇게 끌끌한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소이다. 아! 어머님!

모두 명심해듣거라.
과인은 맏아들 유류를 왕위를 계승할 태자로 봉하오니 과인을 받들듯이 잘 받들지어다.
태자마마를 받들겠나이다.
받들겠소이다
받들겠소이다.
동명왕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태자 유류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고구려는 천년강국으로서의 위용과 기상을 떨쳐 우리 조선민족사를 크게 빛내이였다.

안장왕

글 손형호
그 림 김선심

이 이야기는 세 나라시기인 518년의 여름 어느날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고구려의 왕은 국토통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공적을 쌓은 장수왕의 손자 문자명왕이였다.

왕자 홍안 (후에 안장왕)

공주마마, 어인 일로 그리 상심하셨소이까? 혹시 사랑에 빠진 건 아니오이까?

??

??
누구냐?

부마로는 소인이 적합하온데 공주마마께옵서 소인께 눈길 한번 주시지 않으니 섭섭하기 그지없소이다.

어떤 부마감인지 이마에
혹부터 나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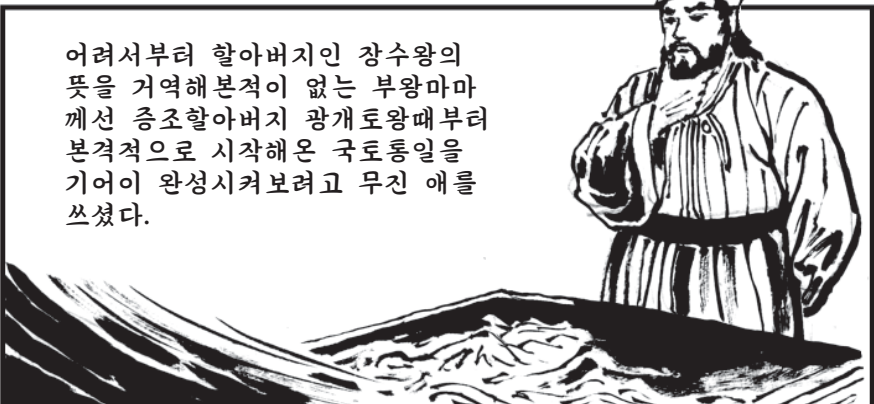
하하하
어마나!
너의 당돌하고 단호한 성민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도다.
태자마마도 갈소이다. 호호호.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심란해 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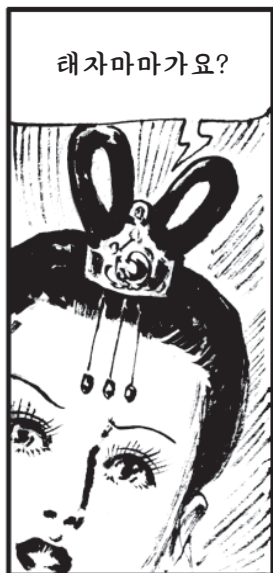
부왕마마를 뵈러 갔댔사와요.

또 신색이 좋지 못하시더냐?

그렇사와요. 어디 편치 않으신가 물어도 대답이 없으시와요.

우리들의 증조할아버님이신 장수왕은 일찌기 아들을 잃고 손자인 부왕마마를 궁중에서 애지중지 키워 태손으로 삼으셨단다.

그러나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백제가 다시 밀려온것을 쳐물리
치지 못하고있으니 그 생각으로
부왕마마에께선 늘 수심에 잠겨
계시는거란다.

태자 홍안, 네가 어떻게?

부왕마마, 태자도 국왕폐하의 아들이고 신하임이 분명할진대 부왕마마의 신상의 괴로움을 어찌 눈뜨고 보고만 있을수 있겠소이까.

기특하도다. 태자 홍안, 너의 선대 할아버지들인 광개토왕과 장수왕께서 너를 굽어보살피실것이다.

그래 어떠냐? 내 차림새가.

호호, 신통히 뜨내기차림이오이다.

그럼 이름을 무엇이라 할가?
이름말이오이까? 저… 《난봉》이란 말이 어울릴듯하오이다.

《난봉》? 거 듣기 거북한 이름이로다. 에라, 《난봉》이면 《난봉》, 그럼 떠나볼가.

뜨내기차림을 하고 떠난 태자 홍안은 백제땅 북부변경의 여러 성들과 령길, 나루들을 돌아보면서 어느덧 한수(한강)기슭을 따라 개백현(경기도 고양군부근)땅에 들어섰다.

응? 나 말이요?

너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예, 전, 저-기 어을매 곳(경기도 파주군 교하면)에서 삽니다.

이상한데, 한성(서울)지방 말씨가 아니잖아?
그래그래, 수상해!

야, 넌 우리와 함께 가야겠다.
어째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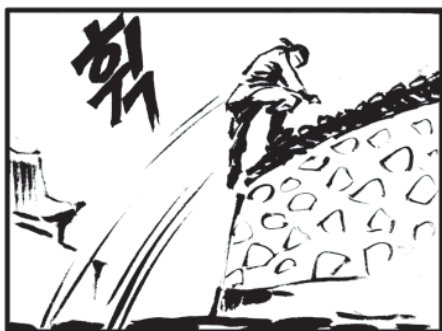
더 알아볼것이 있다. 파
수막까지 가자!

얏!
퍽
직
퍽

어이쿠
저놈 잡아라!
서라!

!!

휙

어마나!

그때 홍안이 뛰여내린 그곳은 개벽현의 으뜸가는 부자 한씨네 집 후원이였고 벼락치듯 들이닥친 일에 깜짝 놀란 이 처녀가 바로 고구려 태자 홍안과 더불어 력사에 이름을 남긴 그 집 딸 한주였다.

랑자, 나를 좀 도와주시오. 사정은 후에 이야기하겠으니 지금 당장은 이 몸을 어디 좀 숨겨줄수 없겠소?
??

낮에 몸을 사리는건 쥐들뿐인걸요.

아니야, 저렇듯 눈에 정기가 이글이글 불타는듯 하는분이 나쁜 사람일순 없어!…

절 따라 오시오이다.

아이, 한 스물은 났을가? 어마나, 내가 무슨 생각을…

쾅쾅쾅

쾅 쾅

무슨 일이세요?

저, 여기 수상한 놈이…

당신들밖엔 얼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이냐?
어딜 갔다오느냐? 시
녀 춘이도 집에 가고
없는 때에 혼자서…
아니와요. 밖이
소란스럽길래…

아까 약속했으니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고구려의 태자 홍안이요.

예?…

내가 이 꼴을 해가지고 예까지 온것은 고구려가 한때 차지했던 이곳을 비롯하여 백제의 북쪽고을을 되찾고 더 나아가서는 한겨레, 한 강토를 하나로 통일하는 위업을 이룩하기 위해서요. 난 고구려 태자로서 그 선봉에 서겠다는것을 부왕께 맹세했소.

어이하여 소녀에 게 그런 솔직한 말씀을…
아까 랑자에게 구원을 부탁할 때 난 말했소. 후에 다 이야기하겠다고… 약속과 사내의 인격은 동일한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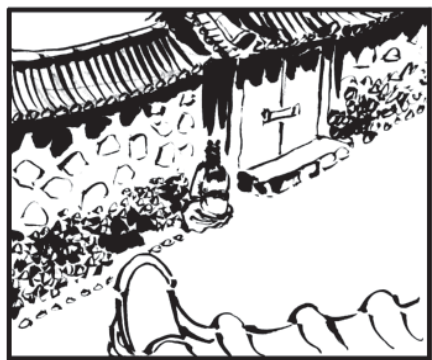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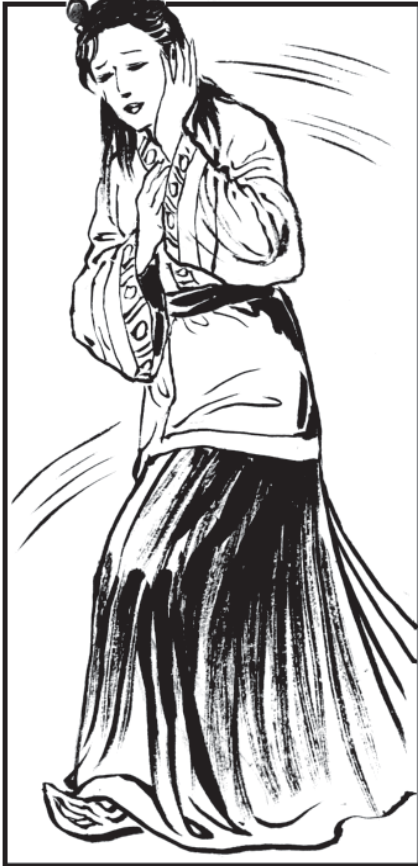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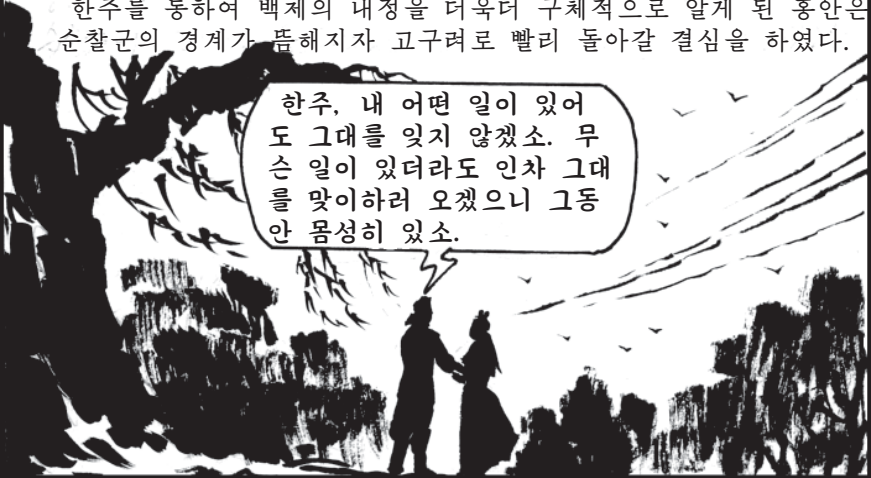
그래도 소녀야 적국의 소녀인데…
적국의 왕자, 적국의 소녀이기에 앞서 한민족끼리 서로 싸우지도 않고 다갈이 화목하게 모여살고싶어하는 국토통일의지가 간직되여있다고 믿고싶소.

랑자, 우리가 이렇게 만난것도 기이한 인연같소. 피차 다른것이 없다면… 한번 먹은 마음 변치 말고 백년해로를 기약하는것이 어떨가 하오.
네?!

어떻소, 랑자생각에는?

부모님의 승낙이
없이 어떻게…
소녀 그만 물러가
겠나이다.

가만, 랑자이
름은 어떻게
부르오?

왕자님도 참…
한주라고 하옵
니다.

이렇게 되여 한주는 태자 홍안을 누구도 몰래 자기 방에 모시고 극진히 돌봐주었으며 그러는 과정에 부모의 허락도 받음이 없이 서로 정이 통하게 되였다.
한주를 통하여 백제의 내정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홍안은 순찰군의 경계가 뜸해지자 고구려로 빨리 돌아갈 결심을 하였다.
한주, 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를 잊지 않겠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인차 그대를 맞이하러 오겠으니 그동안 몸성히 있소.

제 걱정은 조금도 마시오이다. 부디 귀한 몸 건강하시고 품은 뜻 성공하시기를 바랄뿐입니다.
고맙소, 한주!

기다리겠소이다! 인차 못오신다 해도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기다리겠나이다.

엉?

네가?

아씨의 시녀 춘이오이다.

한주의 가슴속에 불길처럼 타오른 그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의 시녀가 어찌 알수 있으랴. 그 사랑의 불길은 고구려를 향해 떠나간 홍안의 가슴속에도 꼭같이 타고있었으니 이듬해 519년 문자명왕이 죽어 왕위에 오른 후에도 그는 한시도 한주를 잊지 않았다. 문자명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태자 홍안, 그가 바로 안장왕이였다.

고구려의 기본정책인 세나라통일위
업을 추진시키는것이 곧 사랑하는
한주와 하루빨리 만나는 길이다.
왕자님!-한주!

???
한주!

한주가 누구시오이까? 상감마마.
안학공주, 너로구나. 어인 일로 왔느냐?

이름을 들어보면 꼭 아릿다운 처녀갈은데 누구시오이까? 상감마마.

검질기긴 소힘줄 한가지로다. 나에게 있어서 한주는 국토통일이요, 국토통일은 곧 한주이거늘 그리 알고 더 여쭐 말이 없으면 그만 물러가거라.

공주마마, 안학공주마마!
아니, 을밀장군이…
공주, 보고싶었소.
이번 싸움에서 몸을 상하
진 않으셨소이까?

아니, 백제군의 공격을 성과적으로 쳐물리쳤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은게 아니요?

우리들의 사랑을 말씀드리고 결혼을 승낙받자고 상감마마를 뵈러 갔댔소이다.

수수께끼치고
는 아주 쉬운
수수께끼로구
만.

네?

상감마마께서도 이 을밀처럼
사랑에 빠지셨소. 그래, 공
주갈으면 사랑을 위해 국토
통일을 버리겠소, 아니면 국
토통일을 위해 사랑을 버리
겠소.

오늘은 궁성적으로 수수께끼를
내는 날이오이까?

생각해보오. 사랑도 국토통일
도 다 귀중하단 말이요. 아마
상감마마께 있어서 그건 더 할
거란 말이요.

안장왕은 그후에도 세나라통일위업을 위하여 여러차례 군사들을 내보내여 백제군과 맞서싸우게 하였다. 백제군사와의 치렬한 격전의 앞장에는 언제나 유명한 청년장군 을밀이 서있었다.

523년 가을, 안장왕은 대군을 편성하여 례성강일대에서 백제군사와 큰 조우전을 벌렸다. 이 싸움에서도 을밀은 큰 공을 세웠으나 그와 안학공주와의 사랑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감마마, 이번 싸움에서 수고가 많으셨소이다.

괜찮다. 그런데 국력이 다시 강화된 백제도 결코 만만치 않아 뜻대로 통일위업을 전진시킬수 없는 것이 안타깝구나.

어떠하냐, 짐이 너의 부마를 선정해줌이…

괜찮소이다. 소녀가.

음? 정한 상대가 있단 말이냐?

어떤 부마감인지 혹
부터 나봐라! 하하
하… 그게 누구냐?

저… 이번 싸움에서 공을
세운 을밀이옵니다.

을밀?!

을밀은 안된다!
탁

네?

물론 을밀은 기개도 있고 싸움도 잘한다. 그러나 문벌이 낮은것이 을밀의 치명적인 약점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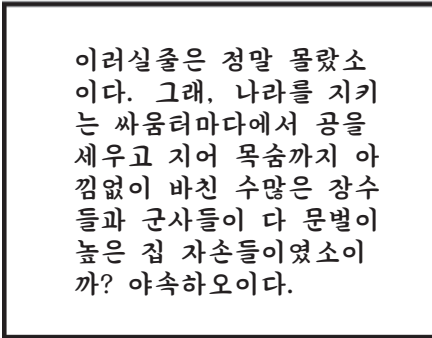
문벌의 높낮음이 사랑에 무슨 상관이 있소이까?

문벌은 가문의 위세이고 왕족가문의 위세는 나라의 위세인줄 네 모른단 말이냐?

모르겠소이다. 소녀는 다만 을밀장군의 애국심을 귀중히…

애국심도 문벌에 따른다. 높은 곳의 등불이 멀리 비친다 하였거늘 애국심도 그와 같은 리치로다. 을밀은 절대로 안된다!

이러실줄은 정말 몰랐소이다. 그래, 나라를 지키는 싸움터마다에서 공을 세우고 지어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친 수많은 장수들과 군사들이 다 문벌이 높은 집 자손들이였소이까? 야속하오이다.

상감마마께서 늘 그리시는 그 한주라는 녀인도 혹 문벌이 낮은 집 자손이여서 지금껏 꺼리시는게 아니오이까?
발칙한것!
흑흑

안장왕의 처사에 반발심이 치민 을밀은 병을 핑게하여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고말았다. 자기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나라를 지키는 중한 일을 그만둔 을밀의 행위도 용납할수 없는것이지만 그릇된 관점에서 출발한 왕의 당치 않은 처사가 빚어낸 후과가 얼마나 큰것인가를 력사는 이야기하고있다.

태수는 이러저러한 계기들에 개백현의 으뜸가는 부자 한씨의 딸 한주가 절세의 미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파를 내세워 그 부모에게 청혼을 하였다.

새로 오신 한성태수로 말한다면야 그 인품이 호랑이 찜쪄먹을 제일 장부이신데 그결에 물찬 제비같은 댁의 따님을 척 세우면 한그루 멋진 버드나무같이 잘 어울릴것인즉 이 아니 천상배필이겠소이까 .

허나 우리 한주로 말하면 누구나 한번 보면 황홀해하는 일등미인인데다가…

말씀의 뜻을 알만하오이다. 아, 태수님으로 말하면야 개백현의 물항아리를 다 합친것보다 속이 넓고 깊은분이신데 댁에서만 반대없으시다면…

뭐라구? 그게 사실이냐?

소녀는 한성태수의 청혼을 받아들일수 없나이다.
그건 왜?

소녀에겐 이미 마음을 둔 사나이가 있소이다. 그인 지금 먼곳에 가있사옵니다. 그의 생사여부를 알아본 다음 처신하겠나이다.

아니, 그게 무슨 알쏭달쏭한 소리냐?
아이구, 거기에 알쏭달쏭할게 뭐가 있소? 한성태수가 싫으니깐 말을 지어내는거지. 여보, 저앨 타이르시구려, 태수가 알면 가만둬두겠소?

얘야, 나는 우리 집에서 렬녀가 나오는걸 바라지 않는다. 걱정없이 팔자좋게 살면 그만이 아니냐.
제발 내 말을 듣거라.

뭐 뭐라구
뭐? 마음에 둔 남자가 먼 곳에 있다구? 생사여부를 알아보고 처신하겠다구?

그렇다 하오이다.
그게 누구냐?

제 아비, 어미에게도 대답을 안한다 하오이다.

음…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걸 보니 한주가 마음을 둔 남자는 필시 타국의 밀정일것이다. 한주를 당장 옥에 가두도록 하라!

한주를 옥에 가둔 한성태수는 한편으로는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감언리설을 다하며 자기와 결혼하자고 꼬이였다.

오래동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으나 한주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게 된 태수는 529년 어느날 그를 자기의 생일날에 죽이겠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이 소식은 고구려의
안장왕에게도 전해졌다.
한주, 내 그대와의 약속을
지켜 개백현을 되찾고 그대
를 꼭 구원할테요.

짐의 특별어명을 내리겠도다. 만일 개백현을 회복하여 한주를 구원하는자가 있으면 금 천근과 큰 벼슬을 줄것이다!

대단한 상금이요.
허나 옥에 갇힌 한주를 구원한다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거요.
백제군의 경계를 뚫고 국경지대 150리를 지나야 하니?…

며칠후
상감마마, 개백현을 회복하여 한주미인을 구원하겠다는 사람이 아직 없소이까?

아직은…
궁신들중에서 《높은 곳의 등불》은 한 사람도 없나보오이다.
《높은곳의 등불》?
문벌이 높은 사람말이오이다.
야멸차도다!
상감마마, 적국의 한주미인이 옥에서도 지조를 지키고 십여년세월 기다려온것도 문벌이 높기때문이오이까?

네 아직 을밀을 잊지 못하고있구나, 지독한것!
상감마마.
무슨 일이냐?
상감마마, 개백현을 회복하고 한주를 구원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소이다.
그래? 어서 들여보내라!
상감마마께 문안드리오.
엉? 을밀장군이?!
그렇소이다. 상감마마, 허나 천금의 상도 큰 벼슬도 신의 소원이 아니오이다.

암, 사랑이란 그런것이구말구.

마침내 안장왕은 을밀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어명을 받은 을밀장군은 정예군사 오백명을 거느리고 먼저 개백현으로 떠나게 되였다.

이 거울을 가지고가서 자주 모습을 비춰보소이다. 거울에 군사가 아닌 을밀의 모습 비끼지 않게 해주사이다.

공주, 고맙소.

을밀장군은 떠나면서 임금에게 대군을 친솔하고 륙로로 나올것을 요청하였다. 안장왕은 백제 북부를 북쪽과 동쪽, 서쪽에서 동시에 여러 길로 나누어 들이칠 면밀한 작전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직접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가 한때 차지했던 개백현을 비롯한 백제 북부고을들을 되찾기 위한 싸움의 길에 나섰다.

한편 바다길로 한강상류 가까운 으슥진 곳에 닿은 을밀장군은 비밀리에 제일 날랜 군사 이십명을 뽑아 한발 먼저 개백현으로 침투해 들어가도록 하였다.

래일이 바로 한성태수의 생일이다. 필시 큰 잔치를 차릴것인즉 너희들은 춤군으로 가장하여 연회장에 침투하라.
알겠소이다.

새돌이, 넌 옥에 갇힌 한주에게 상감마마의 구원의 손길이 곧 닿을것이니 마음을 굳게 먹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전해라.
명심하겠소이다.

한주의 집
마님, 한성태수가 래일 자기 생일날에 아씨문제를 아퀴짓는다며 부근의 고을관리들과 친지들을 초청하였다 하오이다.
뭐라구? 아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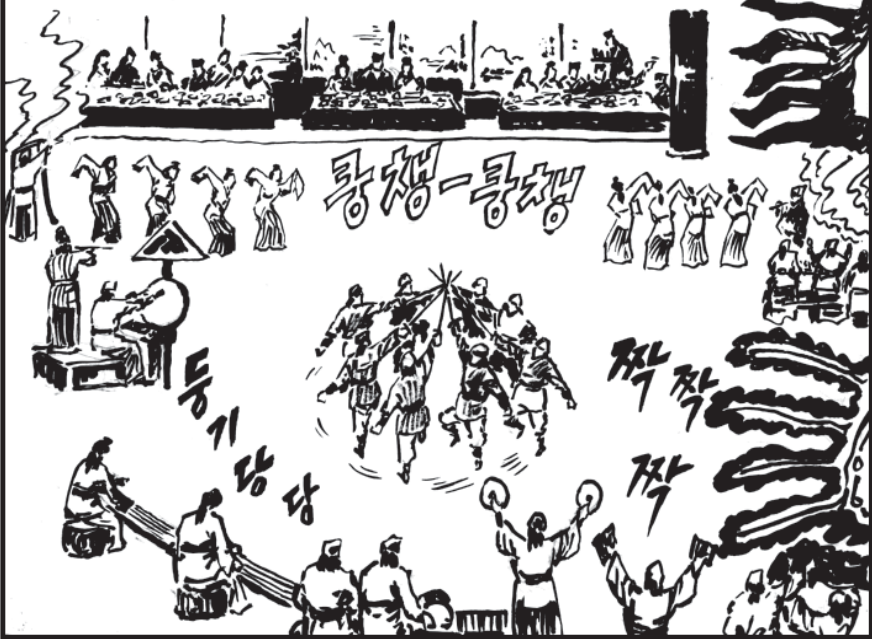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한주 살려주옵소서. 죽은 귀신은 소용없사오니…
랑자가 한주시녀요?
네, 뉘세요?
이 쪽지를 아씨에게 부탁하오. 아씨를 살리는 글이요.
?!
아씨를 살리는 글이라 하오이다.

다음날 한성태수는 개백현에 큰 잔치를 벌려놓았다.

쿵챙-쿵챙

둥기당당

짝짝

짝

태수님께서는 만일 이제라도 마음만 돌린다면 오늘이 바로 너의 두번째 생일로 될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로 될것이라고 하시였은즉 어서 대답해! 어떻게 할텐가?

태수께서 나의 뜻을 빼앗지 않으면 태수의 생일이 나의 생일로도 될것이오나 그렇지 못하면 이날이 곧 태수의 마지막날이 될지 누가 알겠나이까? 이렇게 전해주사이다.

뭐라구

여봐라, 한주년을 당장 끌어내다가 목을 쳐라.

으악!
야-

우리는 고구려군사들이다.
쳐라!

군사들, 앞으로!

만-세~!

한편 안장왕이 거느린 고구려대군도 개백현을 향하여 나는듯이 진격해오고있었다. 백제왕의 령을 받은 장군 연모가 3만대군을 거느리고 모곡벌(례성강하류일대)로 나와 반격전을 벌렸으나 고구려군의 강력한 타격으로 격파당하였으며 동시에 고구려군이 각지에서 쳐나옴으로써 백제군의 퇴로는 곳곳에서 차단되였다.

뭐?! 대왕께서?!

춘이야, 어서 어서 내 몸을 일으켜다오.

아니, 아씨 그 몸으로는 안 되오이다. 제가 마중가서 알릴터이니 누워계시오이다.

내 걱정은 말아. 춘이야, 너는 곧 멀리 마중나가 대왕님을 달을성봉우리로 모시고 오너라. 그쪽에는 복병이 없고 안전한 곳이니…
내가 봉우리에 봉화를 지펴놓고 기다린다고 전하여라. 어서 떠나거라.

아! 랑군님!

한주는 옥고를 치른 몸이였지만 달을성봉우리(고봉)에 올라가서 봉화를 올렸으며 마침내 그처럼 그리던 안장왕을 만나게 되였다.

대왕님

한주! 얼마만이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소.

아니오이다. 소녀의
마음속엔 언제나 대
왕님이 계셨소이다.
후날 고구려사람들은 안장왕과 녀성의 깨끗한 절개를 지킨 미인 한주가 만난 이곳을 영원히 추억하기 위해 개백현을 왕을 맞이한 곳이라고 하여 왕봉현이라고 불렀다. 안장왕과 한주의 기이한 사랑이야기, 이 이야기는 후세에 나온 《춘향전》의 소재로 되였다고 전해지고있다.
이젠 모두가 함께 모
여살게 되였소이다.
아니, 세나라통일위업은 아직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소. 그
러나 한겨레, 한민족이 모여
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것이요.